



## 남원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 성금 전달

남원시 운봉읍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에서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난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회원들이 성심성의껏 모은 성금 100만원을 운봉읍(읍장 양재우)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운봉지역 31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회는 파프리카를 지역 대표 특화작물로 기우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온 결과 해외 수출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 전문 생산단지 최우수 조직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 작목반 박태성 회장은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연말에 작은 성의나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꾸준한 이웃돕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 봉남면 유귀석씨,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 봉남면 유귀석씨는 27일 관내 저소득층 가정 및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백미(10kg) 100포와 라면 100박스 6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

유귀석씨는 매년 연말이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 가정 및 경로당 등에 기탁물품을 전달해왔으며 올해 벌써 22년째 꾸준히 어려운 이웃에게 은정을 베풀고 있어 지역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유귀석씨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순창 관내 제조기업, 희망 2023 나눔캠페인 동참

순창군이 관내 제조기업에서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한 희망 2023 나눔캠페인 기부 모금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은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배신’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매년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돋기 위해 추진해온 모금 운동이다.

이 행사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순창성가정식품(대표 김종덕),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로)과 풍산면에 소재한 비엔푸드(대표 봉명숙)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성마리오농장은 1,000만원, 순창성가정식품은 300만원의 기부금을 기부하였으며 비엔푸드는 훈제오리 제품 등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군민들을 위해 헌쾌히 기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체육상 시상식·체육인의 밤’ 개최

## 체육발전 유공 체육인·우수선수 시상 등 진행

순창군체육회는 지난 26일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에서 ‘2022 순창체육상 시상식 및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순창군체육회장인 양영수 회장과 죄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 군의원을 비롯한 체육회 임원 및 종목단체장과 동호인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2년 사업 성과보고 및 영상을 시청 순창군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 11명, 선수 2명, 지도자 3명에 대한 시상과 엘리트 선수 20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양영수 순창군체육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2년 순창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체육상 시상자와 순창을 빛낸 순창 출신 우수선수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순창군체육회에서는 2023년 전북 원종왕전과 2024년도에 도민체전 유치 확정으로 순창 체육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죄영일 순창군수는 축사를 통해 “올해는 전년보다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순창군을 널리 알리는



해였고, 이는 순창군 체육인들과 군민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순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겠으며,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서정심 새집추어탕 대표, 장학금 500만원 기탁

새집추어탕 대표 서정심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27일 장학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서정심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6년째 기탁금을 전달하면서 새집을 성원해 주신 시민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기탁한다고 전했다.

이는 창업주의 기부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금년에도 실천한 것이다.

남원을 대표하는 추어탕식점 ‘새집’은 1959년 창업하여 60여년간 수많은 국민이 찾은 맛집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연말연시를 맞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에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새길축량설계사무소 2백만 원,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3백만 원, 쭈삼성전기에서 3백만 원, 전북은행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새길축량설계사무소 박성진·최정민 공동대표는 “무주로 지난해 사무소를 뜯겼는데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회사가 되고 싶다”며 “무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향로산자연휴양림 김종국 대표는 “휴양립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쭈삼성전기 정현성 대표는 “무주의 청소년들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은행무주지점 이경호 지점장은 “기업이운의 사회 회원 차원에서 무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속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연일 지역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마음이 올 연말을 더 훈훈하게 하는 것 같다”며 “기부금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재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지난 26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안심공동체 치안 역량 강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유봉현 경찰서장을 비롯한 무주경찰발전협의회 회장과 20여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경찰서 주요치안활동 사항을 소개하고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무주경찰서를 방문하는 접촉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치안고객민족도와 무주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치안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체감안전도에서 도내 1위 성과에 대해 자축하였고 이 기초를 유지하여 더욱 더 군민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